

2021년 3월 17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가치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며 혼조

대형 기술주, 반도체 상승 Vs. 금융, 에너지, 중소형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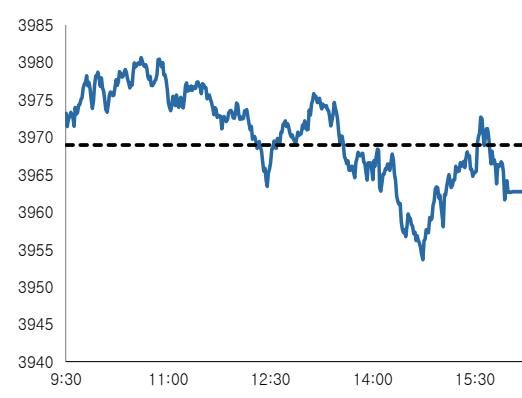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뚜렷한 성장주, 가치주 순환 장세

미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기술주 등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 특히 실물경제지표 둔화도 성장주의 강세를 이끔. 더불어 호재가 유입된 대형기술주와 반대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에너지 업종의 하락 등 가치주와 성장주 순환이 확대된 점도 영향. 결국 성장주의 뚜렷한 강세가 특징이지만, 전체적으로는 FOMC를 앞두고 차익 매물 출회로 혼조(다우 -0.39%, 나스닥 +0.09%, S&P500 -0.16%, 러셀 2000 -1.72%)

미 증시는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우위를 보이는 모습. FOMC를 기다리며 최근 상승이 컸던 가치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 되었으며, 페이스북(+2.02%)과 AMAT(+3.15%) 등의 호재와 NOV(-10.34%)의 악재로 위축된 에너지 업종의 부진이 이를 촉발. AMAT는 4/6 일 투자자의 날 개최 및 배당 인상 등으로 강세를 보이자 여타 반도체 업종의 상승 주도.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뉴스 관련 마찰을 해소하며 뉴스코퍼(+1.81%)와 계약 체결하자 여타 콘텐츠 업종과 더불어 상승. 이러한 개별 이슈가 성장주 강세를 이끔. 반면,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NOV 가 예상을 하회한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급락.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여타 에너지 업종의 실적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며 에너지 업종 전반에 걸쳐 매물 출회. 이 결과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가치주 부진을 야기

비록 FOMC를 앞두고 국채금리는 보합권 등락에 그쳤으나 실물 경제지표 부진과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국채 수요가 높아진 점도 성장주의 강세 요인. 미국 2월 실물 경제지표는 겨울 폭풍의 여파로 부진.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0% 감소했는데. 자동차가 전월 대비 2.7% 감소하는 등 2월에 발생한 겨울 폭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 산업 생산 또한 전월 대비 2.2% 감소 했는데 자동차 생산이 8.3%나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도 72.3%에 그쳐 지난달 74.6%보다 크게 위축. 이러한 실물 경제지표 둔화는 가치주의 매물 출회를 촉발. 20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응찰률이 최근 6 번의 평균인 2.32 배를 상회한 2.51 배, 간접입찰 또한 최근 6 번의 평균인 59.3%를 상회한 61.4%를 기록하는 등 금리 하락 요인을 자극해 가치주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강세를 이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67.17	+0.70	홍콩항셍	29,027.69	+0.67
KOSDAQ	940.65	+1.48	영국	6,803.61	+0.80
DOW	32,825.95	-0.39	독일	14,557.58	+0.66
NASDAQ	13,471.57	+0.09	프랑스	6,055.43	+0.32
S&P 500	3,962.71	-0.16	스페인	8,657.70	+0.26
상하이종합	3,446.73	+0.78	그리스	860.26	+1.23
일본	29,921.09	+0.52	이탈리아	24,261.12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6%

페이스북(+2.02%)은 호주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뉴스코프(+1.81%)와 협력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1.43%)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감안 강세를 이어갔다. 뉴욕타임즈(+1.64%), 폭스뉴스(+3.34%), 디스커버리(+2.90%) 등 콘텐츠 업종 또한 긍정적인 효과로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3.15%)는 배당 증액 및 4월 6일 투자자의 날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램리서치(+2.19%)는 물론 마이크론(+2.90%), 브로드컴(+1.57%) 등 여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6% 상승했다.

유럽증시에서 폭스바겐(+6.71%)은 예상보다 빠르게 2030년까지 6개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과 유럽 판매량의 70%를 전기차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이 여파로 테슬라(-4.39%)는 경쟁 심화 우려로 하락했다. 니콜라(-7.09%)는 1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로 하락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6.58%)는 직원 보유 3400만주의 락업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으로 급락했다. 에너지 업종인 NOV(-10.34%)가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으며 이 여파로 엑손모빌(-2.12%)을 비롯한 에너지 업종 대부분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했다. 최근 상승이 컸던 델타항공(-3.14%), 카니발(-5.17%) 등 여행 레저 업종은 유럽의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 등을 이유로 매물이 출회 되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06%	대형 가치주 ETF(IVE)	-0.67%
에너지섹터 ETF(OIH)	-4.32%	중형 가치주 ETF(IWS)	-1.24%
소매업체 ETF(XRT)	-2.01%	소형 가치주 ETF(IWN)	-1.85%
금융섹터 ETF(XLF)	-1.04%	대형 성장주 ETF(VUG)	+0.30%
기술섹터 ETF(XLK)	+0.75%	중형 성장주 ETF(IWP)	-0.8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7%	소형 성장주 ETF(IWO)	-1.48%
인터넷업체 ETF(FDN)	-0.36%	배당주 ETF(DVY)	-1.07%
리츠업체 ETF(XLRE)	0.0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0%
주택건설업체 ETF(XHB)	-0.8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7%
바이오섹터 ETF(IBB)	+0.02%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0.06%	하이일드 ETF(JNK)	-0.31%
곡물 ETF(DBA)	+0.52%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1.09%	Long/Short ETF(BTAL)	+1.6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84.62	-2.83%	-1.26%	+12.27%
소재	488.89	-0.87%	+1.65%	+4.87%
산업재	811.09	-1.44%	+2.24%	+6.39%
경기소비재	1,334.07	-0.87%	+2.36%	-2.09%
필수소비재	679.09	+0.07%	+2.34%	+0.75%
헬스케어	1,340.61	-0.04%	+1.60%	-0.84%
금융	566.63	-1.13%	+1.00%	+6.47%
IT	2,348.18	+0.79%	+2.91%	-3.26%
커뮤니케이션	243.04	+0.93%	+2.80%	+1.88%
유 Til리티	319.49	+0.10%	+3.17%	+1.83%
부동산	244.99	-0.02%	+5.25%	+3.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 변화 속 순환매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8% MSCI 신흥 지수 ETF 는 0.42%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9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FOMC 를 앞두고 금리 안정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중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하는 등 주변국 증시의 강세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가치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점은 전일과 달리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72% 하락했고, 원유시장 약세, 달러, 엔화 강세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FOMC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업종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테슬라(-4.39%)가 경쟁 심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급락한 점, 에너지 업종이 실적 부진 우려 속 약세를 보인 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금융, 여행, 레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못한 종목 중심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실물 경제지표 겨울 폭풍 여파로 부진

2 월 미국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치(mom +7.6%)는 물론 예상(mom -0.5%)을 하회한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2.7% 감소하는 등 예상을 하회했다.

2 월 산업생산은 지난 달 발표치(mom +1.1%)와 예상(mom +0.5%)를 하회한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제조업생산은 3.1% 감소해 예상(mom +0.6%)을 크게 하회했으며 공장 가동률은 전월 발표(75.5%)를 하회한 73.8%로 발표되었다.

2 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3%, 수출 물가도 1.6%로 상승으로 발표돼 예상을 상회했다. 1 월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3% 증가해 예상과 부합되었다. 3 월 주택시장 지수는 지난달 84 보다 둔화된 82 로 발표되었다.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미국 1 분기 GDP 성장을 지난 16 일 발표된 8.4%보다 하향된 5.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관망세 짙은 상품, 외환, 채권시장

국제유가는 미국 실물 경제지표 둔화로 하락했다. 특히 달러,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된 점도 부담이었다. 더불어 겨울 폭풍 여파로 설비 손상에 따른 정유시설 가동률 둔화는 원유 재고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높아져 수요일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재고 증가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지표 부진 여파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FOMC 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유로화 등에는 강세를 보였다. 엔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지표 개선 불구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약보합을 보였으며 멕시코 페소 및 브라질 혜알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 양상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실물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20 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증가하는 등 금리 하락 요인이 많았으나 보합권 등락에 그쳤다. 시장은 FOMC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다. 한편, 2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최근 6 번의 평균(2.32 배)을 상회한 2.51 배, 간접입찰도 최근 6 번의 평균(59.3%)을 상회한 61.4%를 기록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실물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했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민간 수출업자들이 농무부에 중국으로의 옥수수 수출을 보고한 영향으로 상승 했다. 대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가 확산된 데 따르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1%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4.80	-0.90	+1.23	Dollar Index	91.867	+0.04	-0.10
브렌트유	68.39	-0.71	+1.29	EUR/USD	1.1903	-0.22	+0.02
금	1,730.90	+0.10	+0.82	USD/JPY	109.01	-0.11	+0.49
은	26.003	-1.08	-0.69	GBP/USD	1.3893	-0.05	+0.01
알루미늄	2,202.50	-0.70	+1.57	USD/CHF	0.9248	-0.36	-0.31
전기동	8,960.50	-2.01	+2.06	AUD/USD	0.7744	-0.14	+0.39
아연	2,810.00	-1.70	+1.17	USD/CAD	1.2443	-0.23	-1.54
옥수수	554.25	+0.86	+1.56	USD/BRL	5.6133	-0.07	-3.31
밀	647.00	+0.31	-1.45	USD/CNH	6.5014	+0.05	-0.27
대두	1,423.25	+0.26	-1.16	USD/KRW	1129.70	-0.58	-0.93
커피	134.50	+1.82	+3.14	USD/KRW NDF1M	1129.97	-0.23	-0.4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620	+1.42	+9.34	스페인	0.313	+1.60	-4.90
한국	2.097	-5.50	+6.20	포르투갈	0.195	+1.90	-6.60
일본	0.105	-0.60	-2.20	그리스	0.863	+4.20	-3.00
독일	-0.336	-0.20	-3.50	이탈리아	0.624	+2.70	-6.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